

中 벽촌 소녀에서 판사로…광주 ‘깁바’가 만든 기적

〈‘양아버지’의 중국말〉



광주문화재단 박강배 실장이 28일 재단 사무실에서 임양 후 남모르게 후원한 중국인 수양딸 후치양웨이씨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깁바’(양아버지의 중국어), 가난한 저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해요.”

오는 2월 6일 결혼을 앞둔 중국 상하이 가정법원 후치양웨이(27) 판사에게는 아빠가 둘이다. 인구 3000명이 사는 호남성의 작은 농촌마을에 사는 농부와 광주문화재단 박강배(52) 실장이 그녀를 키운 아빠다.

판사와 변호사는 중국에서 인기 직업이다. 한 해 35만명이 시험을 봐 3만여명만이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고, 이중 소

수만이 판사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눈을 뜨면 먹을 것부터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시골 소녀가 어엿한 판사가 되고, 중국 유명 대학 교수와 결혼하게 된 과정에는 한국인 ‘깁바’가 전해준 기적이 있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박 실장은 12년 전 상하이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중국어 과외를 해주던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실장 10년전 中 소녀 입양

“생부 못버린다” 입적 반대에 조건 없이 지원만

中 직접 방문해 지도·어학연수 보내 판사로 키워

‘중국의 가난한 아이를 입양해 키워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아이가 없었던 박 실장은 아내와 상의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후치양웨이를 만나게 됐다. 그의 눈에 비친 후치양웨이는 공부하는 못하지 만 선생님 말은 잘 듣는 순박한 소녀였다. 후치양웨이가 사는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직장도 잡지 못하고 농사를 거들며 힘들게 살아 가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후치양웨이는 당돌했다. 당시 그녀는 “날아 준 부모를 버릴 수 없으니, 당신의 호적에는 입적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때부터 박 실장의 조건없는 지원이 시작됐다. 중국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키우는 일반적인 입양이 아니라, 딸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친부모 집에서 자라면서 한국의 박 실장이 지원만 해주는 식의 입양이 이뤄졌다.

친부모를 버릴 수 없다고 때를 쓰는 아이를 탓할 수 없었던 박 실장은 “네가 사람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줄 테니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고

말한 뒤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

박 실장이 내건 조건은 이랬다. 자신이 짜준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공부할 것, 정기적으로 성적표 등 공부 실적을 보내 줄 것이었다.

말에 그치지 않고, 박 실장은 인터넷 등을 뒤져 중국 입시와 교과 과정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고 딸 후치양웨이의 실력에 맞는 교육 과정을 공부할 것을 조언했다. 딸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이메일을 통해 점검했고, 상황에 맞는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부족한 교과 과정은 현지 과외 선생을 몰색해 보충해주기까지 했다. 박 실장은 딸의 대학 합격을 위해 상하이에서 진행 된 대학입시설명회를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박 실장은 “공부가 힘들었던지 어느 날 딸이 ‘아빠 맞아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해요?’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매일 만날 수가 없어서 독한 아빠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의 딸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호남성 호남대 대학원에 진학한 딸



오는 2월 6일 결혼하는 후치양웨이 판사와 신랑 린량청 교수.

을 묵묵히 후원했고, 나중에 대도시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외국계 기업을 상대할 때를 대비해 딸의 해외 어학 연수까지 지원했다.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중국으로 보내야 했지만 감동도 컸다. 어느 날 딸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는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박 실장은 벅찬 감동을 느꼈다.

또 대학 졸업식 때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야”라고 소개하는 딸의 환한 얼굴은 그동안의 고생을 잊기에 충분했다.

판사가 된 딸은 첫 월급을 받아 아빠의 관심 분야인 중국건축사 책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박 실장은 “딸에게 아직 딸은 못했지만 나중에 성공한 뒤 저처럼 가난한 나라의 아이를 입양해 그 아이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착한 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교육감 직선 폐지·자치경찰 시행 계획 다음달 확정

자치위,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 20개 세부과제 설명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치위는 세부계획 확정에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원우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전국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 전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

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토대로 2월말에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계획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 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교육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종합계획 과제 중 중·장기적인 과제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에는 위원회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20개 세부과제 추진 일정과 시행방안이 제시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논란이 크지 않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담길 것”이라며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 논란이 큰 사안은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상세하게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흥업소 늘면 음주 사망자 늘어”

건강증진개발원 연구 보고서

전남 11개 시·군 年 50명 이상

지역사회에서 유흥업소가 늘면 술때문에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술을 멀리하도록 하면 음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2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자치단체별 음주기인 사망수준 추계 및 음주관련 환경 관련성’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53개 시군구별 음주기인 사망수준을 연도별로 추계하고, 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유흥업소, 보건의료자원 등 음

주기인 사망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통계청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253개 지자체의 음주기인 사망자는 1만4948명(남자 1만253명, 여자 287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음주기인 사망자가 130명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자치구는 서울 강서구(141.3명)와 노원구(134.5), 대구 달서구(161.3), 인천 부평구(154.9), 경기도 남양주시(142.8), 충남 천안시(155.9), 전주(150.4), 제주(148.1) 등이었다.

또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는 전남이 11개 시군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고흥(66.6명), 곡성(55.5), 나주(59.6), 보성(56.4), 신안(65.4), 완도(56.3), 무안(54.3), 장흥(68.2), 진도(55.0), 함평(51.6), 해남(60.5)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보증금 1400만·월세 50만원

수도권 대학생 원룸거주 실태 조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수도권 대학생들의 원룸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세보증금으로 평균 1400만원을 내고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대략 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월세보증금의 경우 500만원 이하가 절반(53.2%)을 차지했지만,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2.8%,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가 11.4%였고,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2.5%나 됐다.

또 월세로 41만~50만원을 부담하는 세입자는 전체의 24.1%, 50만원 넘게 부담하는 대학생들은 19.3%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대학생의 77.6%는 월세와 별도로 매달 관리비를 납부했고, 월관리비는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30.6%), 2만원 이하(21.3%), 8만원 초과(19.3%)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업방법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Kore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저를 내어버린 인레이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40611-증-59153호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Kore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저를 내어버린 인레이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40611-증-59153호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